

겸손에 관한 한국인의 상식이론: ‘겸손 편향’ 관점의 한계 및 장래연구 제언*

최 훈 석† 한 지 민 김 도 일‡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기존 문화비교심리 연구에서 개념화한 ‘겸손 편향’의 관점으로는 겸손과 관련된 한국인의 심리를 충실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겸손을 자기-고양 편향에 대비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의 한계를 조명하고,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겸손의 특징을 반영한 겸손의 상식이론을 조사하여 주요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겸손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자기-비하 반응이 유발하는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겸손의 정의에 관한 한국인의 상식이론은 크게 타인/관계와 관련된 인식 차원(자기표현억제, 타인존중, 자기낮춤, 예의/예절)과 겸손 행위자의 자기 내면에 관한 인식 차원(객관적 자기평가, 자기계발, 자기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연구 1). 또한, 연구 1의 상식이론 분석을 통해 확인한 7개 겸손 정의 각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동의함을 확인하여 겸손의 상식이론에 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였다(연구 2). 그리고, 연구 1과 2를 토대로 한국인의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겸손 반응은, 그렇지 않은 자기-비하 반응에 비해서, 겸손 행위자의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이를 매개로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관찰하였다(연구 3). 겸손에 관한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의 함의와 장래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겸손, 겸손 편향, 자기-고양 편향, 겸손의 상식이론

*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21S1A5C2A02089018).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교신저자: 김도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부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philosokim@skku.edu



© 2024,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겸손(modesty)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및 대인관계에서 가치로 여겨지는 중요한 덕목이다(Jones & Wortman, 1973; Kim, 2023). 심리학 분야에서는 긍정심리 및 개인 성격의 미덕(character virtu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겸손에 관한 연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 방면의 연구들은 하나의 가치 덕목으로서 겸손의 정의(예: Exline et al., 2004; Gregg et al., 2008), 개인 성격 구조의 한 단면으로서 겸손/겸양의 특징(예: Ashton & Lee, 2005; Ashton et al., 2004), 그리고 과도한 자기-고양이나 과장된 자존감의 역기능에 대비되는 겸손의 순기능(예: Baumeister et al., 2003; Sedikides et al., 2007)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다.

겸손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다른 추세는 겸손을 동서양의 문화차이를 보여주는 특징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시도들이며, 이는 귀인에서의 동서양 차이에 주목하여 겸손을 자기-고양 편향에 대비되는 현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즉,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은 내적 성향(예: 능력)에 귀인하고 실패는 외적 상황(예: 운, 과제 난도)에 귀인하는 자기-고양 귀인이 우세한 반면(예: Greenberg et al., 1982; Miller & Ross, 1975; Weiner, 1986), 한국,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그와 반대로 실패는 내적 성향에, 성공은 외부 상황에 귀인하는 겸손 귀인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예: 김혜숙, 1995; Bond & Hwang, 1986; Yamaguchi, 1988). 또한, 한국, 일본, 홍콩 대학생들은 성취 귀인에서 겸손 귀인을 우세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겸손 귀인을 하는 사람을 자기-고양적 귀인을 하는 사람보다 선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예: 김진국, 1986; 김혜숙, 유주란, 1995; Bond et al., 1982; Yoshida et al., 1982). 그리고 한국에서 겸손 귀인 및 겸손 귀인자에 대한 선호는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보다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어(조궁호, 김소연, 1998), 자

기-평가 및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 겸손 반응에 대한 선호가 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도 추론할 수 있다. 귀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화차이는 사람들이 자기 긍정성을 유지하고 신장하려는 동기, 즉 자기-고양 동기가 범문화적 현상인지 아니면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 국한된 현상인지에 관한 논쟁(Heine & Hamamura, 2007; Sedikides et al., 2003, 2005)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맥락에서 일부 문화비교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겸손 편향을 서양의 자기-고양 편향에 대비되는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으로 규정한다(Heine et al., 1999).

북미와 동아시아 국가를 주된 비교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향과 겸손 편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문화가 인간의 사회적 판단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자기-평가(self-evaluation)와 사회적 행동에서 관찰되는 겸손 행동을 '편향'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접근법이 타당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겸손은 한국을 위시한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회행위의 근본 원리로 인식되는 가치 덕목이며 개인의 자기 인식 및 타인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 원리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화비교심리 연구에서 겸손을 자기-고양 편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이 지니는 한계를 조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비교심리 연구에서 개념화한 겸손 편향의 관점으로는 겸손과 관련된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을 충실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고착시킬 위험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한국의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겸손의 정의 및 겸손 행동에 관한 상식이론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확인하였다(연구 1, 2). 이를 토대로 실험을 통해 한국인의 겸손에 관한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반응(자기-비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연구 3).

자기-평가에서의 겸손에 관한 문화비교심리 연구: '편향' 관점의 한계

개인의 자기-평가에서 문화차이는 자기-고양 편향과 겸손 편향을 각각 서구 개인주의 사회와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적 현상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한 연구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이 방면의 연구들은 자기-고양 편향과 겸손 편향의 발현에서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Triandis, 1995)의 차별적 영향을 가정한다. 이 가정에 따르면, 개인의 성취와 자기-완결성, 그리고 자기-존중을 강조하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평가 및 대인관계에서 존대를 추구하는 것이 일상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회피하고 긍정적 평가를 유지, 신장하도록 동기화된다. 이러한 동기의 발현으로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귀인과 자기-평가에서 고양 편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사회규범 역시 긍정적으로 편향된 자기-평가에 수용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의존성과 대인관계 및 집단에서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욕구충족,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 조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서 자기-통제와 절제, 겸양을 중시한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에서는 긍정적으로 편향된 자기-평가보다는 자기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나 자기-비하를 수반하는 겸손 편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조공호, 김소연, 1998; Bond et al., 1982; Chiu & Hong, 2006; Kitayama & Markus, 1996).

자기-고양 편향과 겸손 편향에 관한 문화적 가정에 대한 지지 증거는 주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나 본인의 성격특질에 대한 자기-평정 등 명시적 측정치를 활용하여 북미와 일부 동아시아 국가(예: 일본, 홍콩, 중국)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관찰되었다(예: Farh et al., 1991; Heine & Lehman, 1999; Heine et al., 1999; 이에 대한 개관은 Heine & Hamamura, 2007 참조). 반면에, 암묵적 자기-평가(예: Kitayama & Uchida,

2003; Yamaguchi et al., 2007)나 개인에게 중요도가 높은 성격특질(예: Brown & Kobayashi, 2002),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에서 규준적인 성격특질(예: 참을성, 겸손함, 관대함, 협동심, Gaertner et al., 2008; Kurman, 2001)이나 상호의존성 측면의 성격특질(예: 예의바른, 타협을 쉽게 하는, 신뢰할만 한, 박해경, 2011) 등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예: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 한국)에서도 자기-고양 편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이에 대한 개관은 Sedikides et al., 2005, 2007b 참조). 또한,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비판적으로 기술하는 규범이 우세한 반면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규범이 우세하므로, 자기-평가에서 관찰되는 동서양 차이는 자기관의 본원적 문화차이라기보다는 해당 문화권에서 규범적으로 간주되는 자기-기술(self-description)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edikides, 2007; Sedikides & Strube, 1997). 이 주장과 일관되게 Shi와 동료들(Shi et al., 2017)의 연구에서 중국 대학생들은 부정적 특질보다 긍정적 특질이 자기를 잘 기술한다고 응답하여 서구에서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긍정 편향을 보였다. 단, 겸손 규범이 특출한 조건에서는 통제조건에 비해서 이러한 편향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겸손 규범이 우세한 중국에서 겸손은 사람들이 자기-고양을 위해 선택하는 일종의 전략적 반응임을 시사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Cai와 동료들(Cai et al., 2011)은 기질적으로 겸손 성향이 높거나 상황의 요구에 따라 겸손 반응을 보인 중국인들은 명시적 자존감은 낮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높았던 반면, 미국인들의 경우 겸손 반응은 낮은 수준의 명시적 자존감만 유발할 뿐 암묵적 자존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의 자존감이나 특질 평정이 아닌 자기 수행평가에서의 문화차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상충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 방면의 연구에서는 주로 조직의 직무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수행에 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예: 동료평가, 관리자평가)를 비교하여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평가가 우수한 경우를 관대성 편향으로(lenience bias),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겸손 편향으로 개념화하여 비교한다(이에 관한 메타분석은 Cho et al., 2022; Heidemeier & Moser, 2009 참조). 이 접근법을 취한 일부 연구들에서 서구 개인주의 사회(예: 미국)에서는 관대성 편향이, 그리고 동아시아(예: 중국)에서는 겸손 편향이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나(예: Barron & Sackett, 2008; Farh et al., 1991; Harris & Schaubroeck, 1988), 다른 연구들에서는 관대성 편향과 겸손 편향에서 문화비교 연구자들이 가정하는 동서양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예: Furnham & Stringfield, 1994; Yu & Murphy, 1993). 또한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보고된 총 40개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개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차이를 비교한 최근 연구(Cho et al., 2022)에서도 겸손 편향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서구에서 보고된 바와 일관되게 관대성 편향이 관찰되었다.

자존감이나 성격특질, 수행평가 등에서의 자기-평가에 관한 문화비교심리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재로서는 자기-고양 편향과 겸손 편향이 각각 서구 개인주의 사회와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의 고유한 현상인지에 관해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이와 유사한 결론은 Matsumoto, 1999 참조). 특히 사적 상황과 공적 상황에서의 자기-제시 차이에 주목하여 공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비하적 평가(self-deprecation)를 겸손 편향의 주요 특징으로 규정하고 동아시아에서 관찰되는 겸손 반응을 자기-고양 동기가 작동하는 일종의 거짓 겸손(false modesty)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예: Cialdini & de Nicholas, 1989; Cialdini et al., 1998)은 한계를 지닌다.

서구 사회에서도 겸손은 중요한 가치덕목이며(Schlenker, 1980),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 겸손은 단순히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상형성을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실된 자기지각을 반영한다(Markus & Kitayama, 1991).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대인관계 및 집단에서 타인의 관심과 질투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서의 겸손과 겸손의 심리적 특징, 즉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자기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게 바라보는 자기 인식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Sedikides et al., 2007b)도 제기되었다. 또한,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겸손 규범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Sedikides et al., 2007a) 겸손은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의 규준적 행위로서 바람직성을 내포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겸손을 편향의 관점에서 자기-고양 편향에 대비시키는 기존 접근법으로는 겸손의 심리와 행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어렵다.

겸손에 관한 한국인의 상식이론

서구 심리학에서 겸손에 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겸손의 대인관계적 특징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겸손을 공적 상황에서 개인의 장점과 능력을 평가절하 하여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Cialdini et al., 1998)로 개념화 한다. 반면에, 겸손의 내부 심리적 특징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개인의 자기-평가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자신을 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Sedikides et al., 2007)으로 정의한다. 이 두 가지 정의 모두 구성개념으로서의 엄밀성은 갖추었는지 모르나 사람들의 일상 경험에 담겨있는 겸손의 심리와 행동을 기반으로 개념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Gregg et al., 2008). 심리현상에 관한 구성개념은 사람들의 일상 경험을 반영하는 포괄성을 지녀야 하며, 만약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해당 개념에 관한 연구는 현실 관련성(relevance)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겸손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 역시 겸손의 정의, 겸손 행동의 전형

적 특징 및 해당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 겸손 행동의 결과 등에 관한 사람들의 일상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Exline과 Geyer(2004)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혼합하여 겸손에 대한 호오도(好惡度), 겸손한 사람의 전반적 특징 등에 관한 응답을 수집하여 겸손에 관한 상식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겸손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겸손(modesty)과 겸양(humility)을 매우 유사한 특징으로 인식하였으며, 겸손의 정의로 '잘난체 하지 않기', '이기적이지 않음', '본인의 성공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기', '교만하지 않음' 등 긍정적인 특징들을 많이 언급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수치심, 수모, 창피함, 피동적 태도 등과 같은 부정적 특징들도 언급했다. 소규모 미국 대학생 표집에 의존한 Exline과 Geyer(2004)의 연구를 확장하여 Gregg 등(2008)은 영국과 미국의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겸손의 사례들(exemplars)을 수집하였다. 이 사례들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의 전형성에 대한 평정 자료를 통해 겸손의 상식이론을 분석한 결과, 겸손한 사람들의 핵심 특징으로 '겸허한 태도', '수줍음', '배려적', '잘난체 하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고 주변적 특징으로 '정직함', '호감이 감', '교만하지 않음', '다른 사람들의 관심받기를 꺼려함', '평범함', '품위 있음'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겸손의 상식이론과 기존 문화비교심리 연구에서 적용한 겸손의 정의 간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겸손에 관한 한국인의 상식이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유용한 접근법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온 유학의 겸손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희(朱熹)는 유가적 전통의 겸손을 禮記의 한 구절(自卑而尊人)을 통해 간단히 정의한 바 있다. 즉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주희, 2002). 이 정의는 현대 국어 사전에서도 여전히 인용된다. 유가적 겸손의 특징 중 하나는

주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서 상대방이나 타인에게로 전환하는 심리적 과정에서 찾아진다. Kim (2023)에 따르면, 이 특징은 중세 신유학에서 유순(柔順), 유이불거(有而不居), 무아(無我)와 연관됨으로써 개념적으로 더욱 정교화되었다. 유순함은 단순히 타자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조건 속에서 부드럽게 유가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타자들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이다. 유이불거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 성취, 사회적 지위에 편협하게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장점, 성취, 사회적 지위 등을 더 온전히 존중하게 됨을 말한다. 그리고 무아는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거나 없애려는 태도가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온전히 대우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조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처럼 유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겸손은 문화비교 연구에서 다루는 '편향'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중국에서 겸손의 원형을 조사한 연구(Shi et al., 2021)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국의 대학생들이 지닌 겸손의 상식이론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음', '예의바름', '여유있고 태평함', '진실됨', '비판에 수용적임', '안정됨', '주의깊음', '영감을 주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신유학의 겸손 개념과 유사하며 미국과 영국에서 보고된 겸손의 상식이론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유학에서 강조하는 겸손의 내부 심리특징과 행위특징은 오랜 문화사회화 과정을 거쳐 한국인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금장태, 1996; 조궁호, 2007; 한덕웅, 2003; Kim, 2023).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일상 경험에 토대를 두고 겸손의 상식이론을 분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김은미와 김기범(200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맥락에 따른 겸손언행을 구분하여(의례성, 상대고양 겸손, 자아고양 겸손) 각 언행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를 다루

었다. 김유나와 안정광(2023)은 Whetston 등(1992)이 개발한 겸손반응척도(Modest Responding Scale, MRS)를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한국판 MRS의 3요인 구조(대인관계적 겸손성향, 사회적 바람직성, 겸허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겸손의 상식이론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겸양(humility)을 구분하여 측정할 목적으로 미국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연구이다.

연구 개관

겸손의 상식이론을 조사한 선행연구(Exline & Geyer, 2004; Gregg et al., 2008; Shi et al., 2021)와 일관된 방법으로 겸손에 관한 한국인의 상식이론을 조사하고, 한국인의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겸손 언행과 그렇지 않은 겸손 언행이 유발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겸손의 상식이론을 개방형으로 조사하여 겸손에 관한 인식의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자료를 토대로 겸손의 정의에 관한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겸손의 정의로서 각 범주별 사례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1에서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한 겸손의 상식이론에 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1과 연구2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겸손에 관한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겸손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자기-비하)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해당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연결감과 자존감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1

방 법

참가자 및 절차

대한민국 거주 성인(만 19세 ~ 만 59세 이하)을 대상으로 겸손에 관한 자유연상 반응을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사전문업체(엠브레인퍼블릭)의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에 따라 비례할당표집을 통해 모집되었다($N = 167$, 남 47.3%, 여 52.7%, 평균 연령 44.29세, $SD = 13.73$). 조사는 참가자들의 사전 동의 후 실시되었으며, 겸손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과 경험에 관한 질문들에 응답한 뒤, 인구통계변수 문항에 답하고 연구가 종료되었다.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기관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SKKU 2021-11-021).

측정도구

참가자들은 겸손에 관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답했다(‘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겸손한 태도를 지니거나 행동을 했을 때 유발되는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분석방법 및 절차

한 질문에 두 개 이상의 의미를 혼합하여 응답을 한 경우가 일부 관찰되어, 두 명의 대학원생들이 독립적으로 문항별 응답을 단위화(unitization)하고 평정자간 일치도를 점검하여 불일치 응답은 협의를 통해 교정하였다(표 1). 단위화를 거친 최종 자료를 내용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4명의 대학원생들이 독립적으로 예비 범주를 생성하고, 2인의 전문가가 논의를 거쳐 최종 분류 범주를 설정하였다. 범주 분류를 위해 각 범주를 대표하는 응답 사례들을 포함시켜 분류 기준표를 만들고, 2명의 사회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이 기준표를 학습한 후 참가자들의 응답을 해당 범주에 할당하였다. 범주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응답들은 논의를 통해 합의된 범주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각 범주에 분류된 응답

표 1. 문항별 응답 개수 및 분석 일치도

	응답 개수	단위화(unitizing) 1차 일치도(%)	단위화(unitizing) 2차 일치도(%)	범주화 1차 일치도(%)	범주화 2차 일치도(%)
겸손의 정의	262	89.8	97.6	89.6	99.2
겸손의 결과	219	97.0	100.0	84.9	98.6

들을 수치화하여 빈도자료를 얻었다.

결 과

겸손의 정의

참가자들이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총 262개의 자료를 얻었고, 1개의 불성실 응답(예: '겸손')을 제외한 총 261개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총 7개의 내용 범주가 추출되었다. 이 7개 범주들은 크게 타인/관계 관련 범주와 자기 관련 범주로 구분되었다(표 2). 겸손의 정의에 관한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자기표현억제' 범주에 속하며, '자랑하지 않음, 티내지 않음, 드러내지 않음' 등의 응답을 포함하였다(전체 응답의 27.5%).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타인존중' 범주

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존중, 배려, 타인을 무시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전체 응답의 26.3%). 세 번째로 높은 빈도는 '자기낮춤' 범주였으며, '자신을 낮춤, 낮은 자세' 등의 응답을 포함하였다(전체 응답의 21.4%). 네 번째 범주는 '예의/예절' 범주로, '상대방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것, 예절' 등이 그 예이다(전체 응답의 9.5%). 다음으로 높은 빈도는 '객관적 자기평가' 범주로, '본인의 위치를 아는 것,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등의 응답을 포함했다(전체 응답의 5.7%). 나머지 두 범주는 '자기계발'과 '자기확신'으로 각각 전체 응답의 1.1%였다. '자기계발' 범주는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태만하지 않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고, '자기확신' 범주는 '실력으로 승부함,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7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6.9%의 응답은 '기타'로 분류되었다(예; '가지지 못한 자의 비겁한 핑계, 정직

표 2. 겸손의 정의에 대한 응답 분류

순위	범주명	범주 설명	빈도	백분율(%)
1	자기표현억제	자신의 성과나 좋은 면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	72	27.5
2	타인존중	타인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	69	26.3
3	자기낮춤	자신의 능력, 성과, 지위 등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	56	21.4
4	예의/예절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써의 예절과 의례성	25	9.5
5	객관적 자기평가	자신의 가치나 능력 수준을 타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15	5.7
6	자기계발	자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3	1.1
6	자기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3	1.1
-	기타		18	6.9
	전체		261	100.0

한 마음, 압전함' 등)(표 2).

겸손의 긍정적 결과

하나의 덕목으로서 겸손한 태도를 지니거나 겸손을 행했을 때 유발되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응답을 의미 단위화한 결과, 총 219개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불성실 응답 4개를 제외한 215개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총 6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긍정적 인상 형성(37.0%), 상호작용 촉진(20.5%), 자기수양/자기발전(13.7%), 부정적 상호작용 예방(7.3%), 자기만족(7.3%), 타인존중(6.8%).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범주는 '긍정적 인상 형성'으로,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로 새겨짐,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 촉진' 범주로, '원활한 인간관계, 유대관계가 형성됨' 등을 포함했다. 세 번째는 '자기수양/자기발전' 범주로, '인격이 수양됨,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네 번째는 동일 빈도수를 보인 '부정적 상호작용 예방'과 '자기만족' 범주로, '부정적 상호작용 예방'은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사지 않음, 주변에서 질투가 적음' 등을 포함했고 '자기만족' 범주는 '스스로 훌륭해진 느낌, 마음이 편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끝으로 '타인존중' 범주는 '상

대방에게 예의를 갖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음' 등을 포함했다. 이 6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들은 '기타' 범주로 분류되었다(예: '다른 이에게 동정을 받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 등)(표 3).

논 의

대한민국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겸손의 상식 이론을 조사한 결과, 겸손이 무엇인지에 관한 응답자들의 상식이론은 자기표현억제, 타인존중, 자기낮춤, 예의/예절, 객관적 자기평가, 자기계발, 자기확신 등 총 7개 개념 범주로 확인되었다. 겸손의 정의로 응답자들이 기술한 전체 응답 중 총 84.7%를 차지하는 상위 4개 범주(자기표현억제, 타인존중, 자기낮춤, 예의/예절)는 타인이나 관계에 초점화된 범주들이고, 나머지 3개 범주(객관적 자기평가, 자기계발, 자기확신) 자기에 초점화된 범주임을 알 수 있다. 겸손의 상식이론을 분석한 선행연구들(Exline & Geyer, 2004; Gregg et al., 2008; Shi et al., 2021)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의미 범주일수록 전형성이 높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에서 겸손에 관한 상식이론은 타인/관계 관련 측면이 자기 관련 측면에 비해서 겸손의 정의로서 전형

표 3. 겸손의 긍정적 결과 응답 분류

순위	범주명	범주 설명	빈도	백분율(%)
1	긍정적 인상 형성	상대방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81	37.0
2	상호작용 촉진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	45	20.5
3	자기수양/자기발전	자신을 갈고 닦아 더 나은 상태가 됨	30	13.7
4	부정적 상호작용 예방	타인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예방	16	7.3
4	자기만족	자신이나 자기 행위에 대해 스스로 흡족하게 여김	16	7.3
6	타인존중	타인을 존중하고 높임	15	6.8
-	기타		12	5.5
	전체		215	100.0

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인의 겸손 상식이론은 서구 연구자들이 개념화한 자기-고양 전략적 겸손이나 거짓 겸손의 개념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특히, 의도적으로 꾸며진 거짓 행위로서의 자기낮춤을 겸손의 정의로 언급한 응답은 자료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7개 개념 범주들 가운데 타인/관계 관련 범주들은 미국과 영국, 중국 등에서 보고된 겸손의 상식이론(Exline & Geyer, 2004; Gregg et al., 2008; Shi et al., 2021)과 유사하다(배려적, 잘난체 하지 않음, 예의바름). 그러나 객관적 자기평가, 자기계발, 자기 확신 등 자기의 내면에 초점화된 3개 범주들은 서구나 중국에서 보고된 겸손의 상식이론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겸손 행위자의 내면적 성장, 성숙과 관련된 이 범주들은 겸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차 한국인의 겸손 심리 및 행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관찰한 자기초점 범주들이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며,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다국가 표집을 활용하여 상식이론을 비교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겸손의 정의에 관한 응답에서는 자기 초점에 비해 타인/관계 초점의 응답이 월등히 많았던 반면, 겸손의 긍정적 결과에 관한 응답은 타인/관계 초점의 응답(상호작용 촉진, 부정적 상호작용 예방, 타인존중)보다(34.6%) 자기 초점 응답(긍정적 인상형성, 자기만족, 자기수양/자기발전)이 많았다(58.0%). 이는 겸손 규범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겸손이 행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겸손이 행위자에게 유발하는 긍정적 결과는 인상관리에 해당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수양과 자기발전, 자기만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지 않게 관찰되었다(21.0%). 즉, 겸손의 긍정적 결과에 관한 인식은 겸손 행위자에 대한 타인의 평가 측면과 행위자 자신의

내면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겸손의 결과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은 단순히 수단 가치의 실현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의 성장, 성숙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인식됨을 시사한다.

연구 2

방 법

참가자 및 절차

연구 1에서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한 겸손의 상식이론 범주들이 일반인들에게 실제로 겸손 언행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성별, 연령대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표집으로 조사전문업체(엠브레인퍼블릭)를 통해 모집되었다($N = 500$, 평균 연령 44.23세, $SD = 13.74$, 남녀 각 50%).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상이 95.6%(고등학교 20.0%, 대학교 이상 75.6%, 미응답 2.8%)로 절대 다수였다. 참가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기관심의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SKKU 2021-11-021 계속연구).

측정도구

연구 1에서 추출한 겸손 상식이론의 7개 범주 각각에서 다수가 응답한 사례들을 토대로 예비 문항들을 개발하고, 2인의 전문가가 안면타당도 점점을 거쳐 최종문항들을 선별하여 범주 당 최소 3개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총 25 문항): '자기표현억제'(예: '겸손은 자신의 성과나 좋은 면을 걸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타인존중'(예: '겸손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자기낮춤'(예: '겸손은 낮은 자세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다'), '예의/예절'(예: '겸손은 구분 없이 예의 바른 것이다'), '객관적 자기평가'(예: '겸손은 자

표 4. 겸손의 개념 및 정의 하위요인별 기술통계치 및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α
자기표현억제	2.08	0.64	.80
타인존중	1.88	0.66	.76
자기낮춤	1.49	0.73	.76
예의/예절	2.00	0.68	.81
객관적 자기평가	1.89	0.65	.69
자기계발	2.07	0.68	.75
자기확신	1.85	0.73	.75

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계발’(예: ‘겸손은 태만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확신’(예: ‘겸손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문항들을 읽고 겸손의 정의로 본인이 해당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0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3점(전적으로 동의함) 사이에 응답하였다.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겸손의 정의에 해당하는 범주들을 무선화하여 제시하였다. 총 25개 문항들에 대해 7개 범주 별 신뢰도를 점검한 결과, Cronbach's α 는 최소 .69, 최대 .81의 양호한 값을 보였다(표 4).

결 과

분석방법 및 절차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2.0와 Mplus 6.0을 활용하였다. 겸손의 정의 2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문항별 및 요인별 기술통계분석과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가 척도의 중앙값과 유의하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했다. 그리고 겸손의 정의에 관한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통해 연령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는 가치관 및

사회현상에 관한 인식에서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세대간 차이를 감안하여, 집단주의 사회의 중요한 덕목인 겸손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간 분절 양상이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겸손의 정의: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 자료를 무작위로 반분하여($N = 250$)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요인분석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KMO는 .083으로 임계치인 .08을 상회하였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도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적정 요인수를 산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oblimin 방식을 적용했을 때 고유치가 1을 넘는 요인 7개가 추출되었으며, scree plot 역시 8요인부터 평균화를 이루고 7개 요인의 누적 설명변량도 66.89%로 높음을 확인하였다(표 5).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7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나머지 반분 자료에 대해서 최대우도추정(ML) 방식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556.482(df = 245, p < .001)$, CFI = .853, TLI = .835, RMSEA = .071, SRMR = .086으로 수용가능한 적합도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 반응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겸손의 정의에 해당하는 7개 개념 범주들이 타인/관계에 초점화된 응답(타인-관련)과 자기에 초점화된 응답(자기-관련)으로 구분되었음에 착안하여, 이 두 요인을 2차요인으로 가정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 480.771(df = 244, p < .001)$, CFI = .889, TLI = .874, RMSEA = .062, SRMR = .074로 적합도 수준이 개선되었다. 이 모형에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한 결과, 자기표현억제 요인과 자기낮춤 요인, 자기표현억제 요인의 ‘겸손은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이다’ 문항과 ‘겸손은

표 5. 겸손의 정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 = 250$)

문항	타인 존중	자기 확신	객관적 자기평가	자기표현 억제	자기 계발	자기 낮춤	예의/ 예절
겸손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다.	0.855						
겸손은 자신보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0.805						
겸손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는 것이다.	0.727						
겸손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0.569						
겸손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0.806					
겸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0.761					
겸손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0.595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것이다.			0.825				
겸손은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0.735				
겸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0.502				
겸손은 자신의 성과나 좋은 면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0.819			
겸손은 자신의 성과나 좋은 면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0.763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0.708			
겸손은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이다.				-0.553			
겸손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0.857		
겸손은 태만하지 않는 것이다.					-0.766		
겸손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0.572		
겸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축소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0.744	
겸손은 자신의 능력, 성과, 지위 등을 타인 앞에서 낮추어 보여주는 것이다.						-0.711	
겸손은 낮은 자세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다.						-0.555	
겸손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0.485	
겸손은 미덕이다.							0.867
겸손은 예절이다.							0.831
겸손은 사람의 됨됨이이다.							0.830
겸손은 구분 없이 예의 바른 것이다.							0.571
고유값	6.473	3.122	2.064	1.550	1.201	1.181	1.131
설명변량	25.891	12.490	8.257	6.200	4.803	4.724	4.525
누적변량	25.891	38.381	46.638	52.839	57.641	62.365	66.890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타인존중 요인의 '겸손은 자신보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 는 것이다' 문항과 '겸손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다' 문항의 수정지수가 높게 나타났

표 6. 모형 적합도($n = 250$)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SRMR
7요인 모형	556.482	245	.853	.835	.071	.086
2차요인 모형	480.771	244	.889	.874	.062	.074
2차요인 수정모형	422.310	241	.915	.902	.055	.064

다. 이를 토대로 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422.310(df = 241, p < .001)$, CFI = .915, TLI = .902, RMSEA = .055, SRMR = .064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표 6).

겸손의 정의에 관한 동의도

겸손 개념을 구성하는 7개 요인 각각에 대해서 참가자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척도 중간점(1.5)을 기준으로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표 7). 분석 결과, ‘자기낮춤’ 요인을 제외한 6개의 요인들의 평균은 척도 중간점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응답자들이 ‘자기표현억제’, ‘타인존중’, ‘예의/예절’, ‘객관적 자기평가’, ‘자기계발’, ‘자기확신’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겸손의 정의라는 데 동의하는 방향으로 인식했다. 반면에, ‘자기낮춤’ 요인의 평균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척도의 중간점과도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 요인을 측정된 문항들의 기술통계치를 검토한 결과(표 8), 네 개의 문항 중 “겸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축소시켜 생각하는 것이다”의 응답 평균이 0.95로 나머지 세

표 7. 겸손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인식 평균(표준편차)과 단일표본 t-검증 결과

	평균(표준편차)	(Test Value = 1.5)
자기표현억제	2.08(0.64)	$t(499) = 20.08^{***}$
타인존중	1.88(0.66)	$t(499) = 12.92^{***}$
자기낮춤	1.49(0.73)	$t(499) = -0.45$
예의/예절	2.00(0.68)	$t(499) = 16.37^{***}$
객관적 자기평가	1.89(0.65)	$t(499) = 13.52^{***}$
자기계발	2.07(0.68)	$t(499) = 18.78^{***}$
자기확신	1.85(0.73)	$t(499) = 10.75^{***}$

*** $p < .001$

문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스스로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함으로써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겸손의 정의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문항을 평균하여(1.67) t-검증을 실시했을 때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척도 중간점 1.5보다 유의하게 높은 동의 수준이 관찰되었다, $t(499) = 4.68, p < .001$.

표 8. 겸손의 정의 - 자기낮춤 요인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겸손은 자신의 능력, 성과, 지위 등을 타인 앞에서 낮추어 보여주는 것이다	1.70	0.97
겸손은 낮은 자세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다	1.80	0.95
겸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축소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0.95	0.90
겸손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1.50	0.98

겸손의 정의에 대한 동의도에서 세대간 차이

겸손의 정의에 해당하는 7개 요인, 25개 진술문에 대해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세대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각 요인별 평균 값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와 그 이전 세대(1960년대~1970년대 출생)를 기준으로 세대와 관련된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20~30대, 40~50대, 60대로 응답자들의 연령을 나누어 비교

하였다(표 9). 분석 결과, 겸손의 정의 중 타인/관계와 관련된 요인인 자기표현억제, $R(2, 497) = 7.06, p = .001$, 타인존중, $R(2, 497) = 8.60, p < .001$, 자기낮춤, $R(2, 497) = 4.32, p = .014$, 예의/예절, $R(2, 497) = 9.31, p < .001$ 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에 대한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표 9, 표 10), 자기표현억제, 타인존중, 자기낮춤, 예의/예절 요인 모두에서 20~30대와 60대 간, 그리고 40~50대와 60대 간 차이가 유의해서 20~30대와 40~50에 비해 60대에서 해당 진술문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

표 9. 세대별 겸손의 개념 및 정의 요인 기술 통계치

연령대	N	자기표현억제		타인존중		자기낮춤		예의/예절		객관적 자기평가		자기계발		자기확신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20~30대	200	2.03	0.66	1.77	0.69	1.43	0.73	1.91	0.70	2.03	0.56	2.08	0.67	1.83	0.78
40~50대	200	2.02	0.63	1.89	0.66	1.45	0.72	1.95	0.68	2.00	0.58	2.06	0.67	1.85	0.69
60대	100	2.29	0.57	2.11	0.56	1.68	0.71	2.25	0.55	2.06	0.51	2.07	0.72	1.90	0.72
전체	500	2.08	0.64	1.88	0.66	1.49	0.73	2.00	0.68	2.03	0.56	2.07	0.68	1.85	0.73

표 10. 세대별 겸손의 개념 및 정의 요인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ost-Hoc (Bonferroni)
자기표현억제	5.65	2	2.83	7.06**	2-30대 < 60대** 4-50대 < 60대**
타인존중	7.37	2	3.69	8.60***	2-30대 < 60대*** 4-50대 < 60대*
자기낮춤	4.51	2	2.25	4.32*	2-30대 < 60대* 4-50대 < 60대*
예의/예절	8.31	2	4.16	9.31***	2-30대 < 60대*** 4-50대 < 60대**
객관적 자기평가	0.24	2	0.12	0.39	-
자기계발	0.02	2	0.01	0.02	-
자기확신	0.29	2	0.14	0.27	-

* $p < .05$, ** $p < .01$, *** $p < .001$

다. 그리고 20~30대와 40~50대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10).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는 겸손에 관한 인식에서 60대 이상의 노년 세대가 청장년 세대에 비해 겸손의 타인/관계 차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겸손의 정의에 관한 청/장년층의 인식은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연구 1의 상식이론 조사에서 추출한 7개 범주를 토대로 측정문항을 구성하여 겸손의 정의에 관한 일반인들의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기낮춤' 범주를 제외한 6개 범주에서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응답함을 확인하였다. '자기낮춤' 범주에 속한 문항들 가운데 자기-비하와 관련된 문항('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축소시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 '자기낮춤' 범주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방향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연구 1의 상식이론 조사를 토대로 구성된 겸손의 개념 정의를 일반인들이 동의하고 수용함을 의미한다.

연구 2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축소시켜 생각하는 자기-비하적(self-deprecating) 판단을 참가자들이 겸손의 정의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자기낮춤' 범주에 속하는 겸손의 정의로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항들은 다른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연구 1에서 수집된 자유 응답들을 상위수준에서 개념화 하여 구성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념적 혼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기-비하는 실제로 한국인의 겸손에 관한 상식이론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개념화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 만약 이 해석이 타당하다면, 한국에서 자기-비하는 겸손의 상식이론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기-비하의 결과 역시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겸손 언행의 결과와는 다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연구 3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1과 2에서 확인된 겸손의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자기-비하적 행동을 구성하여 그에 따른 행위 결과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연구 3

한국에서 겸손은 대인관계 및 집단에서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강조하기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나의 실천행동으로, 타인과의 연결감을 증진시키고 행위자의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은미, 김기범, 2004; 김혜숙, 1995; 조공호, 김소연, 1998; 최상진, 김기범, 2000). 겸손은 특정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형식화되고 규범화된다는 점에서(Bond et al., 1982; Cai et al., 2011; Chiu & Hong, 2006),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겸손의 원형은 하나의 행위규범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추론이 타당하다면, 한국인의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겸손 반응은 하나의 규범-일치 행동으로 행위자의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는 효과를 지니는 반면, 상식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비하적 반응은 행위자의 사회적 연결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이에 더해, 타인과의 연결감 및 소속감이 개인이 경험하는 자존감의 주요 원천임을 감안하면(Baumeister & Leary, 1995; Leary & Baumeister, 2000), 겸손을 실행한 후 행위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연결감은 행위자의 자존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겸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감과 자존감을 겸손의 결과변수로 다루었으나, 겸손 언행과 사회적 연결감, 자존감 간의 개념적 관계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겸손 언행은 규범-일치 행동으로서 사회적 연결감을 촉진하고, 이를 매개로 행위자의 상태 자존감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는 매개가설

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방 법

참가자 및 실험설계

대규모 사립대학 심리학 강좌 수강생 161명 (남성 66명; 평균 연령 = 21.48세, $SD = 1.93$)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2(표현 양식: 겸손/자기-비하) × 2(표현 차원: 과업능력/ 성격특성) 2원 피험자간 무선요인 설계에 무선 배정되었으며, 한 회기당 최대 6명까지 실험에 참여하였다. 표현차원을 실험 설계에 포함시킨 이유는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가 능력과 특질 차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아니면 일관되게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기관심의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SKKU 2021-11-021 계속연구).

실험재료 및 절차

참가자들은 대학생들이 평소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중 하나에 무선 배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이 제시된 상황에 등장하는 주인공(행위자)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몰입하여 시나리오를 읽도록 안내받았다. 시나리오에는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며 쉽게 몰입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은 두 명의 대학생과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자료 조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주인공이 속한 팀이 입상하였으며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다른 팀원들이 주인공에 대해 칭찬하고 이에 주인공이 반응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실험 조건에 따라서 주인공의 과업능력("자료 조사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잘 찾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또는 성격특성("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실한

팀원은 처음이에요")에 대해 팀원들이 칭찬하였고, 주인공은 겸손 반응("저는 자료만 찾았을 뿐이고, 팀원들이 포스터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했기 때문에 잘 된 거죠") 또는 자기-비하적 반응("딱히 팀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았는걸요. 저는 팀플을 진짜 못 하는 것 같아요")을 표출했다. 참가자들이 시나리오를 읽은 후, 시나리오에 대한 참가자들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 본인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서 해당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는 장면을 30초간 마음에 떠올리도록 하고, 사회적 연결감 및 상태 자존감 측정 문항들, 조작점검 문항으로 구성된 질 문지를 작성했다. 이후 실험에 관한 사후 해명을 제공하고 연구를 종료하였다.

측정도구

사회적 연결감

사회적 연결감은 Lee 등(2001)이 개발한 사회적 연결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를 연구 맥락에 맞게 상태 문항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총 6개의 문항(예: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에 대해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응답하였다(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 분석에는 6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9$).

상태 자존감

상태 자존감은 Heatherton과 Polivy(1991)가 개발한 상태 자존감 척도에서 본 연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들(예: 외모에 대한 자존감)을 제외한 총 11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예: "내 수행에 대해 좌절스럽거나 당황스럽게 느낀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낀다"). 참가자들은 해당 진술문이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11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 .95)

조작점검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겸손 표현과 자기-비하적 표현을 연구자들이 의도한 대로 인식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 페이지에 제시된 글에서 ‘나의 대답이 ‘겸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수 측정 전에 조작점검을 실시할 경우 요구특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속 변수를 모두 측정한 후 조작점검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의 응답에 대한 χ^2 검증 결과, 두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여 연구들이 의도한 대로 조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chi^2(1, N = 161) = 55.11, p < .001$ (겸손표현 조건: ‘예’ 89.3%, ‘아니오’ 10.7%, 자기-비하 표현조건: ‘예’ 32.5%, ‘아니오’ 67.5%).

결 과

자료분석은 SPSS 22.0과 Process macro v.3.5 (Hayes, 2017)를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들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을 통해 변수들 간 관계성을 파악한 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겸손 행동이 사회적 연결감을 매개로 상태 자존감을 예측하는 매개모형을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검증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겸손 표현양식(자기-비하 조건 = 0, 겸손 조건 = 1)은 사회적 연결감, 상태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표현차원(과업능력 = 0, 성격특성 = 1)은 종속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과 상태 자존감은 예상대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변량분석

먼저, 사회적 연결감과 상태 자존감에 대해 각 변수의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표현차원의 경우 사회적 연결감과 상태 자존감 모두에서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연결감, $F(1, 159) = 2.20, p > .05$, 상태 자존감 $F(1, 159) < 1$. 반면에, 표현양식의 경우 예상과 일관되게 사회적 연결감과 상태 자존감 두 변수 모두에서 주효과

표 11.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수 간 상관

	(1)	(2)	(3)	(4)	(5)	(6)
성별 (1)	—	-.30**	.04	-.03	-.10	-.17*
연령 (2)		—	-.01	.03	-.07	-.05
표현양식 (3)			—	.01	.42**	.52**
표현차원 (4)				—	.12	.03
사회적 연결감 (5)					—	.78**
상태 자존감 (6)						—
평균	—	21.48	—	—	3.71	3.61
표준편차	—	1.93	—	—	0.90	1.03

* $p < .05$, ** $p < .01$

표 12. 실험 조건 별 평균 및 표준편차

	표현양식				표현차원			
	겸손 조건 (n = 84)		자기-비하 조건 (n = 77)		과업능력 조건 (n = 81)		성격특성 조건 (n = 80)	
	M	SD	M	SD	M	SD	M	SD
사회적 연결감	4.07	0.75	3.31	0.89	3.60	0.92	3.81	0.87
상태 자존감	4.12	0.76	3.06	1.00	3.58	1.00	3.65	1.10

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겸손 조건의 참가자들이 자기-비하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사회적 연결감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F(1, 159) = 33.95, p < .001$. 그리고 상태 자존감에서도 겸손 조건의 참가자들이 자기-비하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높은 상태 자존감을 보고했다, $F(1, 159) = 58.03, p < .001$. 자료에서 2(표현양식) × 2(표현차원)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사회적 연결감, $F(1, 157) = 3.14, p > .05$, 상태 자존감, $F(1, 157) < 1$ (표 12). 따라서, 가설 검증은 표현차원 두 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표현양식 변수만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겸손 표현양식과 상태 자존감 간 관계에서 사회적 연결감의 매개효과

표현양식(0 = 자기-비하, 1 = 겸손)을 독립변

수로, 사회적 연결감을 매개변수로, 그리고 상태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겸손 표현이 사회적 연결감을 매개로 상태 자존감을 예측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10,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간). 분석 결과, 겸손 행동이 상태 자존감을 예측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고($B = 0.47, p < .001$), 매개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 신뢰구간[0.376, 0.821]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표 13, 그림 1). 따라서, 겸손 표현 조건의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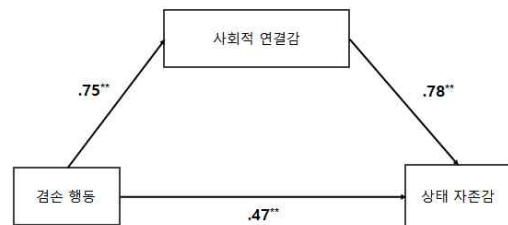


그림 1. 겸손 행동과 상태 자존감 간 관계에서 사회적 연결감의 매개효과

표 13. 겸손 행동과 상태 자존감 간 관계에서 사회적 연결감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B)	SE	95% 신뢰구간(CI)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LL	UL
			겸손 행동 → 사회적 연결감	.75
사회적 연결감 → 상태 자존감	.78	.06	0.67	0.90
겸손 행동 → 상태 자존감	.47	.11	0.26	0.68
겸손 행동 → 사회적 연결감 → 상태 자존감	.59	.11	0.38	0.82

LL: 95% 신뢰구간 하한계; UL: 95% 신뢰구간 상한계

이 자기-비하적 표현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사회적 연결감을 강하게 지각하였고, 이는 높은 상태 자존감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와 집단 상황을 구성하여 가설에 대한 수렴적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이다.

논 의

연구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겸손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 자기-비하적 행동을 시나리오에 구현하여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연결감과 상태 자존감을 분석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겸손 행동은 자기-비하적 행동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결감과 상태 자존감을 유발했으며, 이는 겸손 표현의 능력/특질 차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연구 2에서 참가자들이 자기-비하를 겸손의 정의로 수용하지 않은 것과 일관되며, 최소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자기-비하는 한국인의 겸손 상식이론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자기평가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겸손 표현이 자기-비하적 표현에 비해 상태 자존감을 높이는 경로가 겸손 표현 후 경험한 사회적 연결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겸손의 결과 변수인 사회적 연결감과 상태 자존감 간의 개념적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관점을 생생하게 취하고 해당 상황에 최대한 몰입하도록 실험절차를 구성했고, 조작점검 결과 시나리오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연구자들의 기대와 일관됨을 확인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상의 상황에서도 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참가자들의 실제 경험 및 행동을 포함하는 실험 설계를 적용했을 때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성한 대인 상황이 아닌 다양한 사회관계

종합논의

본 연구는 기존 문화비교심리 연구에서 개념화한 '편향의 관점'으로는 겸손과 관련된 한국인의 심리를 충실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겸손을 자기-고양 편향에 대비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의 한계를 조명하고, 겸손을 전략적 자기-제시 행위로 국한시켜 이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겸손의 특징을 반영한 겸손의 상식이론을 조사하여 주요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겸손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 자기-비하 반응이 유발하는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겸손의 정의에 관한 한국인의 상식이론은 크게 타인/관계와 관련된 인식 차원(자기표현억제, 타인존중, 자기낮춤, 예의/예절)과 겸손 행위자의 자기 내면에 관한 인식 차원(객관적 자기평가, 자기계발, 자기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연구 1). 또한, 연구 1의 상식이론 분석을 통해 확인한 7개 겸손 정의 각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동의함을 확인하여 겸손의 상식이론에 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였다(연구 2). 그리고, 연구1과 2를 토대로 한국인의 상식이론에 부합하는 겸손 반응은, 그렇지 않은 자기-비하 반응에 비해서, 겸손 행위자의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이를 매개로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관찰하였다(연구 3).

겸손의 정의에 관한 상식이론의 두 가지 대범주 가운데 타인/관계 관련 인식 차원은 전반적으로 서구 및 중국에서 보고된 겸손의 상식이론과 유사한 반면, 자기 내면에 관한 인식 차원은 한국인의 상식이론에서 고유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자기계발과 성숙, 객관적 자기평가, 자기만족, 자기확신 등 겸손 행위자의 자기 내면

에 관한 인식 차원은 유이불거(有而不居)나 무아(無我) 등 신유학의 겸손 개념에 상응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다. 이는 겸손에 관한 심리학 연구가 유학사상의 겸손 개념과의 접목을 통해 정교화되고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 마음의 유교적 습관(Tu, 1985)은 여전히 사람들의 세계관 및 사회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금장태, 1996; 조궁호, 2007; 한덕웅, 2003). 따라서, 유학사상의 겸손 개념을 전착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겸손 심리를 조명하는 작업은 겸손과 관련된 사회심리학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겸손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적인 덕목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숙인격의 표상인 유가적 겸손이 문화비교심리학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겸손 편향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동양철학이나 심리학 양 분야 모두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적이 없다.

비록 겸손 편향 연구들이 시사하는 대로 한국인의 겸손 언행에 자기-고양 동기가 일부 반영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기적 목적으로 겸손을 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 관찰되는 겸손 언행을 서구의 자기-고양 편향에 대비되는 또 다른 '편향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겸손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외연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겸손에 관한 한국인의 상식이론을 토대로 추론해보면, 겸손을 행하는 한국인의 상식이론 중 상당 부분이 기존 문화비교심리 연구에서 간과되었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문화비교 연구에서 동아시아 사회의 고유한 현상으로 여겨온 겸손 편향은 겸손을 행하는 주체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 추론이 타당하다면 서구 연구자들이 개념화한 겸손 편향은 한국과 동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이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하면, 현대 한국인의 겸손은 오랜 유교적 전통과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비교적 단시간에 진행되어온 근대화과 서구화, 개인주의화, 다원화 등 복잡한 사회문화적 뿌리를 가진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의 겸손 행태와 관념 속에는 전통적, 유가적 겸손에 개념적 뿌리를 둔 심리 및 행동 요소들과 긍정적 인상형성을 위한 도구적 자기-제시 행동으로 개념화 할 수 있는 현상들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한국인 겸손 경험의 혼재성이라고 명명하면, 기존 문화비교심리 분야의 겸손 편향 연구들은 이러한 한국인 및 현대 동아시아인들의 겸손 행태와 심리 중 일부에만 주목함으로써 특정한 편견을 지속적으로 양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Kim, 2023). 이 점에서, 본 연구의 겸손 관련 상식이론에서 추출된 겸손 정의의 주요 범주들은 장차 한국인의 겸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조망하고 문화비교 연구에서 오랫동안 공유되어온 일종의 편견을 교정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며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교적 많은 사례수의 전국 자료를 활용한 연구 2에서 겸손 상식이론의 각 범주에 대한 일반인들의 동의도를 분석했을 때 연구자들의 기대와 일관된 증거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겸손의 상식이론을 추출한 연구 1이 소규모 표집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겸손 상식이론의 대표성을 주장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전국규모의 대규모 표집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겸손의 상식이론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겸손이 발생하거나 강조되는 전형적인 상황, 겸손 행동의 기저 동기, 지위차이나 친소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겸손 행동의 고유한 특징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연구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자기초점 범주는 겸손의 이유나 결과로 볼 수 있는 응답(예: 자기확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심리현상에 관한 상식이론 조사의 주목적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겸손처럼 추상수준이 높고 잘 정의되지 않은 심리현상에 관한 상식이론 조사에는 해당 현상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그 현상의 이유나 결과 등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본 연구의 기여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유사한 예로, '행복' 상식이론 조사에서 행복의 정의로 '마음이 평온한 것'이라는 응답이 관찰된 경우, 이 응답이 행복의 이유나 결과에 해당하므로 행복의 정의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평온한 것이 행복의 이유이자 결과이므로 상식이론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지의 문제이다. 비록 별도 표집을 활용한 동의도 분석(연구 2)을 통해 자기초점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들 역시 겸손의 정의로 인식됨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의 정의를 겸손의 이유나 결과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1에서 겸손 언행의 긍정적 결과만을 다루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에서 겸손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나 역효과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사회에서 겸손이 초래하는 다양한 결과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2에서 관찰된 겸손의 정의에 관한 세대간 분절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상식이론에서의 세대분절과 상관을 보이는 세대별 핵심특징들을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겸손이 실행되는 전형적인 상황이 대인관계 및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간 접촉이 빈번한 사회적 상황에서 겸손의 정의에 관한 상식이론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규명하는 연구는 대인관계 및 집단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및 신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겸손 상식이론의 핵심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점화하는 방법론을 발굴하고, 엄격히 통제된 실험실 연구

를 통해 대인관계,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평가 등에서 겸손 행동의 인과적 영향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기-비하 조건은 겸손 편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국가 표집을 활용한 비교연구 역시 중요한 장래연구 과제이다.

저자 소개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한지민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기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관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상유지 상태(status quo)에서 개인이 협력하거나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도일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교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대적 시민성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전통적 덕성과 그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가치를 탐구 중이다.

참고문헌

금장태 (1996). 유학사상의 이해. 집문당.

- 김유나, 안정광 (2023). 한국판 겸손 반응 척도 (K-MR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215-235.
doi: 10.21193/kjssp.2023.37.2.005
- 김은미, 김기범 (2004). 사회적 맥락에 따른 겸손 언행 의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47-60.
- 김진국 (1986). 수행정보 및 귀인정보가 관찰자의 귀인자 평가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 217-245.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 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9(1), 45-63.
- 김혜숙, 유주란 (1995).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이 귀인자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9(2), 51-67.
- 박혜경 (2011). 허위 독특성 편향의 문화차: 문화와 자기고양에 대한 재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27-142.
- 조궁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심리학적 접근. 서울: 지식산업사.
- 조궁호, 김소연 (1998). 겸양 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주 회 (2002). *주자전서*. 상해고적출판사.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體面)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한덕웅 (2003). *한국유학심리학: 한국유학의 심리학 설과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서울: 시그마프레스.
- Barron, L. G., & Sackett, P. R. (2008). Asian variability in performance rating modesty and leniency bias. *Human Performance*, 21(3), 277-290.
doi: 10.1080/0895928080213775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doi: 10.1037/0033-2909.117.3.497
- Ashton, M. C., & Lee, K. (2005). Honesty-humility, the Big Five, and the Five 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73, 1321-1353.
doi: 10.1111/j.1467-6494.2005.00351.x
- Ashton, M. C., Lee, K., & Goldberg, L. R. (2004). A hierarchical analysis of 1,710 English personality-descriptive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707-721.
doi: 10.1037/0022-3514.87.5.707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doi: 10.1111/1529-1006.01431
- Bond, M. H., & Hwang, K.-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pp. 213-26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 Leung, K., & Wan, K. C. (1982). How does cultural collectivism operate? The impact of task and maintenance contributions on reward distribu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2), 186-200.
doi: 10.1177/0022002182013002004
- Brown, J. D., & Kobayashi, C. (2002). Self-enhancement in Japan and America.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3), 145-168.
doi: 10.1111/1467-839X.00101
- Cai H. J., Sedikides C., Gaertner L., Wang C., Carvallo M., Xu Y., O'Mara E. M., Jackson L. E. (2011). Tactical self-enhancement in China: Is modesty at the service of self-enhancement in East-Asian cultur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1), 59-64.
doi: 10.1177/1948550610376599

- Chiu, C.-Y., & Hong, Y.-Y. (2006). *Social psychology of culture*. Psychology Press.
- Cho, I., Hu, B., & Berry, C. M. (2023). A matter of when, not whether: A meta-analysis of modesty bias in East Asian self-ratings of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8*(2), 291-306. doi: 10.1037/apl0001046
- Cialdini, R. B., & de Nicholas, M. E. (1989). Self-presentation by assoc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26-631. doi: 10.1037/0022-3514.57.4.626
- Cialdini, R. B., Wosinska, W., Dabul, A. J., Whetstone-Dion, R., & Heszen, I. (1998). When social role salience leads to social role rejection: Modest self-presentation among women and men in two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5), 473-481. doi: 10.1177/0146167298245003
- Exline, J. J., Campbell, W. K., Baumeister, R. F., Joiner, T., & Krueger, J. (2004). Humility and modesty. In C. Peterson & M. Seligman (Eds.), *The Values In Action (VIA) classification of strengths*. (pp. 461-475) Cincinnati, OH: Values in Action Institute.
- Exline, J. J., & Geyer, A. L. (2004). Perceptions of humility: A preliminary study. *Self and Identity, 3*(2), 95-114. doi: 10.1080/13576500342000077
- Farh, J.-I., Dobbins, G. H., & Cheng, B.-s. (1991). Cultural relativity in action: A comparison of self-rating made by Chinese and U.S. workers. *Personnel Psychology, 44*(1), 129-147. doi: 10.1111/j.1744-6570.1991.tb00693.x
- Furnham, A., & Stringfield, P. (1994). Congruence of self and subordinate ratings of managerial practices as a correlate of supervisor evalu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7*(1), 57-67. doi: 10.1111/j.2044-8325.1994.tb00549.x
- Gaertner, L., Sedikides, C., & Chang, K. (2008). On pancultural self-enhancement: Well-adjusted Taiwanese self-enhance on personally valued trai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4), 463-477. doi: 10.1177/0022022108318431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2). The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Beyond self-presen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1), 56-67. doi: 10.1016/0022-1031(82)90081-6
- Gregg A. P., Hart C. M., Sedikides C., Kumashiro M. (2008). Lay conceptions of modesty: A prototyp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7), 978-992. doi: 10.1177/0146167208316734
- Harris, M. M., & Schaubroeck, J. (1988). A meta-analysis of self-supervisor, self-peer, and peer-supervisor ratings. *Personnel Psychology, 41*(1), 43-62. doi: 10.1111/j.1744-6570.1988.tb00631.x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eatherton, T. F., & Polivy, J.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95-910. doi: 10.1037/0022-3514.60.6.895
- Heidemeier, H., & Moser, K. (2009). Self-other agreement in job performance ratings: A meta-analytic test of a process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2), 353-370. doi: 10.1037/0021-9010.94.2.353
-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1), 4-27. doi: 10.1177/1088868306294587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8), 915-925. doi: 10.1177/01461672992511001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doi: 10.1037/0033-295X.106.4.766
- Jones, E. E., & Wortman, C. (1973). *Ingratiation: An attributional approach*.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im, D. (2023). Unveiling the true nature of Confucian humility in the modern context-A methodological proposal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mbining cultural psychology and East Asian philosophy.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40*, 157-179.
doi: 10.22916/jcpc.2023.40.157
- Kitayama, S., & Markus, H. R. (1996). Construal of self as a cultural fram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izing psychology. In J. D'Arms, R. G. Hastie, S. E. Hoelscher, & H. K. Jacobson (Eds.), *Becoming more international and global: Challenge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pp. 89-130)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itayama, S., & Uchida, Y. (2003). Explicit self-criticism and implicit self-regard: Evaluating self and friend in two cult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5), 476-482.
doi: 10.1016/S0022-1031(03)00026-X
- Kurman, J. (2001). Self-enhancement: Is it restrict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2), 1705-1716.
doi: 10.1177/01461672012712013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 pp. 1-62). Academic Press.
doi: 10.1016/S0065-2601(00)80003-9
- Lee, R. M., Draper, M., &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10-318.
doi: 10.1037/0022-0167.48.3.31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doi: 10.1037/0033-295X.98.2.224
- Matsumoto, D. (1999). Culture and self: An empirical assessment of Markus and Kitayama's theory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289-310. doi: 10.1111/1467-839X.00042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2), 213-225.
doi: 10.1037/h007648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lenker, B.R. (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 Sedikides, C. (2007). Self-enhancement and self-protection: Powerful, pancultural, and functional. *Hellenic Journal of Psychology*, *4*(1), 1-13.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60-79.
doi: 10.1037/0022-3514.84.1.60
- Sedikides, C., Gaertner, L., & Vevea, J. L. (2005). Pancultural self-enhancement reloaded: A meta-analytic reply to Heine (2005).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539-551.
doi: 10.1037/0022-3514.89.4.539
- Sedikides, C., Gaertner, L., & Vevea, J. L. (2007). Evaluating the evidence for pancultural

- self-enhancement.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3), 201-203.
doi: 10.1111/j.1467-839X.2007.00227.x
- Sedikides, C., Gregg, A.P., & Hart, C.M. (2007). The importance of being modest. In C. Sedikides & S. Spencer (Eds.), *The self: Frontiers in social psychology* (pp. 163-184). New York: Psychology Press.
- Sedikides, C., & Strube, M. J. (1997). Self evaluation: To thine own self be good, to thine own self be sure, to thine own self be true, and to thine own self be better.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209-269). Academic Press. doi: 10.1016/S0065-2601(08)60018-0
- Shi, Y., Sedikides, C., Cai, H., Liu, Y., & Yang, Z. (2017). Disowning the self: The cultural value of modesty can attenuate self-positiv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6), 1023-1032.
doi: 10.1080/17470218.2015.1099711
- Shi, Y., Gregg, A.P., Sedikides, C., & Cai H. J. (2021). Lay conceptions of modesty in China: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2(2), 155-177.
doi: 10.1177/0022022120985318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 Tu, W. (1985). *Confucian thought: Selthood as creative transformation*. SUNY press.
- Weiner, B. (1986). Attribution, emotion, and ac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281-312). Guilford Press.
- Whetstone, M. R., Okun, M. A., & Cialdini, R. B. (1992, June). *The modest responding scale*. [Paper presentation].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Convention, San Diego, CA.
- Yamauchi, H. (1988). Effects of actor's and observer's roles on causal attributions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competitive situ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3(2), 619-626.
doi: 10.2466/pr0.1988.63.2.619
- Yamaguchi, S., Greenwald, A. G., Banaji, M. R., Murakami, F., Chen, D., Shiomura, K., Kobayashi, C., Cai, H., & Krendl, A. (2007). Apparent universality of positive implicit self-esteem. *Psychological Science*, 18(6), 498-500.
doi: 10.1111/j.1467-9280.2007.01928.x
- Yoshida, T., Kojo, K., & Kaku, H. (198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2), 120-127. doi: 10.5926/jjep1953.30.2_120
- Yu, J., & Murphy, K. R. (1993). Modesty bias in self-ratings of performance: A test of the cultural relativity hypothesis. *Personnel Psychology*, 46(2), 357-363.
doi: 10.1111/j.1744-6570.1993.tb00878.x
- 1 차원고접수 : 2023. 10. 18.
수정원고접수 : 2023. 12. 12.
최종게재결정 : 2024. 01. 15.

Korean Lay Theory of Modesty: Critical Analysis of the 'Modesty Bias' Perspectiv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Hoon-Seok Choi Jimin Han Doil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offers a critical analysis of the 'bias perspective' on modesty in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authors argue that the notion of 'modesty bias' does not adequately capture the psychological core of the everyday experiences of modesty in the Korean cultural context. Along the lines, we surveyed the lay theory of modesty among Korean adults ($N = 167$) and content analyzed the responses. From this, we found two higher-order conceptual categories (other/relation focus, self-focus) that include a total of seven major components pertaining to the definition of modesty (Study 1). The other/relation-focused lay theories reflect the understanding of modesty in terms of inhibiting self-expression, respecting others, lowering oneself, and acting with propriety. The self-focused lay theories included objective self-awareness, self-cultivation, and self-certainty. In an independent sample of Korean adults ($N = 500$), we obtained evidence that the seven components driven from the lay theories reflect the Koreans' understanding of modesty (Study 2). Based on our finding in Study 2 that self-deprecation, commonly featured in the previous work on East Asian modesty, does not correspond to the lay theory of modesty among Koreans, we experimentally tested the effects of a modesty behavior congruent with the lay theories (vs. a self-deprecating behavior) on social connectedness and state self-esteem. We found that, as compared to the self-deprecating behavior, the modesty behavior promoted perceptions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tate self-esteem. We also found that the modesty behavior led to perceptions of social connectedness, which in turn led to higher levels of state self-esteem. We discus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research on modesty in social and cultural psychology.

Key words : Modesty, modesty bias, self-enhancement bias, Korean lay theory of modesty